

書評：濱田耕策、「渤海國興亡史」（吉川弘文館、
2000.11）를 읽고

韓, 圭哲
慶星大学校史学科

<https://doi.org/10.15017/2198500>

出版情報：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9, pp.51-56, 2009-03-31. Research Center for Korean Studies,
Kyushu University

バージョン：

権利関係：

書評：

濱田耕策、『渤海國興亡史』 (吉川弘文館、2000. 11)를 읽고

韓圭哲 (慶星大學校史學科)



渤海史(698~926)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가장 큰 한계는史料의 부족으로부터 나온다. 編年類전 紀傳類이건간에 體系的인 記錄이 없다는 것이 渤海史 研究 環境의 가장 큰 장애이다. 그만큼 발해 역사는 史實의 復原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자료부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발해사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다행히도 『舊唐書』와 『新唐書』 北狄列傳 기록이 발해사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큰 역할을 勘當해 왔다. 발해가 멸망하고 얼마 안되어 편찬된 『舊唐書』(940~945)를 비롯해서 100년이 훨씬 지난 시기인 1044년부터 1060년까지 17년에 걸쳐 완성된 『新唐書』가 가장 기본 사료가 되어 있다. 아울러 『續日本紀』 등 日本史料도 발해와 일본간의

왕래 사실을 비롯해서 발해의 경제와 학문수준을 짐작하게 하는 여러 기록들을 갖고 있어 중요하다.

1차 사료에 입각한 2차적 발해사 연구의 연구성과는 문헌연구와 현장을 중심으로 한 고고·발굴에서 이루어져 왔다. 문헌에서는 前近代의 朝鮮時代 學者 柳得恭(1749~1807)이 『渤海考』(1784)를 내놓았던 것이 최초였다면 근대 이후로는 鳥山喜一の 『渤海史考』(1915)가 가장 먼저였으며, 발굴보고서로서는 東亞考古學會가 중심이 된 『東京城-渤海國上京龍泉府址の發掘調査』(1939)이 출간되기도 하였다.

근대적 발해사 연구가 集成된 것은 1979년에는 北韓의 박시형(『발해사』, 김일성대학출판사, 1979)이 그리고 1984년에는 中國의 王承禮(『渤海簡史』)와 朱國忱·魏國忠(『渤海史稿』)이, 1994년과 1995년에는 韓國의 韓圭哲(『渤海的對外關係史』)과 宋基豪(『渤海政治史研究』)가 單行本을 출간하였는가 하면, 일본에서도 2001년에 酒寄雅志(『渤海と古代の日本』)와 石井正敏(『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이, 그리고 2002년에는 上田雄이(『渤海使の研究』) 그 연구성과를 出刊하였다.

이러한 渤海史學史에서 저자가 펴낸 『渤海國興亡史』(2000)가 갖는 의미 또한 적지 않다.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사 속에서 발해사를 복원하였지만 그 가운데 신라와의 관계 또한 적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다. 著者が 新羅史 專攻者로서 더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발해와 신라관계 또한 다른 어느 연구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장점 중의 하나다. 著者が 신라사에 쏟은 結實은 『新羅國史の研究：東アジア史の視點から』(吉川弘文館, 2002)로 出刊된 바도 있다. 그러나 저자는 新羅史에 못지 않게 渤海史에 대해서도 관심과 열정을 쏟아 왔음이 이 저서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앞에서 소개한 新羅史 저술보다 먼저 本書가 출간됨으로서 그의 학문적 넓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하게 하였다. 그리고 本書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번역 출판되어 발해사 연구자나 일반 독자들에게 발해사를 보다 깊고 넓게 알게 하는데 寄與하고 있다.

한국에서 발해사 논저가 번역·소개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 중국의 論著와 日本

의 일부 논문이 번역·소개되었던 것이 고작이었다. 日本에서 出刊한 渤海史에 관한 概說書類의 單行本이 번역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영희 역, 『발해국흥망사』, 동북아역사재단, 2008.3). 東北亞歷史財團에서 이 책을 번역하기로 企劃한 意圖는 보다 쉽게 쓰여진 渤海史를 일반에게 알리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本書가 日本에서도 大衆性이 높은 吉川弘文館의 歴史라이브러리(106)로 출간되었던 것이 번역·기획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한국의 고대사 학자들은 일정하게 일본 논문을 참고할 정도로 소화하고는 있지만 일반 독자나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갈증을 풀어주는 데 이 번역서가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서는 興亡史를 기준으로 발해국의 역사를 4시기로 구분하여 책의 목차로 삼고 있다.

프롤로그 : 발해를 보는 눈

武의 시대(발해의 탄생 / 大武藝의 치적 / 발해국과 당의 분쟁 / 발해국왕을 향한 길)

文의 시대(발해 국왕의 文治 / 발해 완성 / 발해 국왕의 외교 / 왕국의 사회경제)

富의 시대－海東盛國(왕권의 동요 / 大言義와 大明忠의 치세 / 신라의 渤海觀 / 大仁秀의 치세 / 大仁秀의 對日本外交 / 大彝震의 治世 / 150인의 遣日本使 / 副王의 即位)

商의 시대(大玄錫의 치세 / 교역 진행)

王國의 解體(무력한 왕국 / 亡國의 외교관 / 유민의 동향)

參考文獻

後記

프롤로그는 본서의 서술의도와 서술기준이 되는 역사관을 몇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15대 229년의 발해사에 대하여 그 영토규모와 현재의 위치 등에 대하여 밝히고, ‘滿州國’의 잃어버린 역사로 인식하는 日本人의 渤海史觀과 南北韓과 中華人民共和國이 각자의 ‘民族史’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을 지적하면서 현대 渤海史研究에는 ‘國家와 民族’에 따라 左右되는 歷史觀과 世界觀이 있음을 우려하면서 이를 排除하고자 한다는 期待를 담고 있다.

著者は 渤海人을 主人公으로 삼는 역사서술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역사적 관점에 입각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즉 ① 자료를 중시하고 ② 同時代, 唐, 新羅, 日本史와의 관계속에서 渤海史를 照射하며 ③ 외교관계에서는 唐이나 日本에 중점을 두지 않으며 발해사를 獨自的 歷史로 다루려 한다고 前提하고 있다.

著者は 발해를 4기로 나누는 배경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시대구분이 管見的인 입장에서 私的唯物論에 입각한 중국사 구분법에 따라 발해를 고대 노예제사회로 본다고 비판하면서, 왕권의 형태, 외교에 임하는 자세, 경제적 양상, 그리고 문화적 성격 등에 초점을 기준으로 4시기로 구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저자는 4시기의 분명한 구분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 아님도 인정하면서, 3기와 4기는 경제발전과 사회변화에 따른 ‘지방화시대’라는 특징 등이 있다고 시기구분에 대한 생각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발해사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靺鞨諸族의 社會, 首領의 存在, 靺鞨과 高句麗 그리고 바다, 靺鞨과 突厥을 제시하며 약술하고 있다.

評者は 저자가 밝힌 역사서술의 배경과 내용이 본론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으며, 이것들이 발해역사의 실질적 복원에 얼마나 합치하는가 하는 점에 관심을 갖고 감히 그 내용에 대한 所見을 밝혀보고자 한다.

著者が 발해인을 그 주인공으로 삼고자 한다고 하는 점은 모든 발해사 연구자들의 희망이다. 그러나 이는

研究者의 意慾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一般的이다. 渤海史 復原을 위한 기록들이 대부분 당중심이고 일본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의도적으로 많은 문장의 주어를 발해와 발해왕들에서 찾고 있다. 중국중심의 발해사 서술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史料中心의 역사기록 태도는 문헌사가들이 지켜야 할 責務라 그 중요성을 새삼 再論할 필요도 없다. 다만 전해지는 唐과 日本 중심의 문헌사료만을 가지고 발해사를 복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는가 하는 점은 저자가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것 같다. 著者도 이 점을 잘 간파하고 프롤로그에서 저서가 당이나 일본 중심으로 발해사를 보지 않고 발해 중심으로 보겠다는 의욕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저자의 의도와 다르게 이 著書는 당과 일본중심의 해석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특히 당중심의 기록을 그대로 援用하여 渤海史를 복원하려고 한 부분이 評者의 눈에 들어왔다.

시대의 劃期부터도 발해왕에 대한 당의 ‘進封’ 내지 ‘進爵’ 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발해왕에 대한 당의 進爵의 의미에 대해서는 일본 학계에서도 의견이 많지만, 古畑徹이 이미 지적하였듯이(『渤海와 唐과의 關係』『東아시아속의 渤海와 日本』, 韓日文化交流基金·東北亞歷史財團, 2007.11.2: 景仁文化社, 2008). 이를 발해사 발전이나 變化의 劃期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한다. 이것은 唐의 外交的 變化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評者는 이미 762년 발해 3대 文王 大欽茂가 ‘渤海郡王’ 에서 ‘渤海國王’ 으로 進封되는 것은 唐의 一方의인 外交行爲였던 것이지, 이것이 渤海의 政治的 變化過程에서 일어난 結果가 아니었다고 보았다(韓圭哲, 1994).

이와 관련하여 713년 渤海 高王 大祚榮이 唐으로부터 ‘渤海郡王’ 으로 冊封받고 “이 때로부터 (발해를) 말갈이라 부르지 않고 오로지 발해라고만 불렀다”(自是始去靺鞨號專稱渤海)는 『新唐書』(卷219, 北狄, 渤海) 기록을 당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듯 渤海의 國號가 唐이 ‘賜與’ 한 ‘渤海郡王’ 으로부터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本書는 ‘渤海郡王’ 이라는 冊封號가 前漢 郡縣의 ‘渤海郡’ 에서 나왔고, 713년의 冊封號로부터 ‘靺鞨’ 에서 ‘渤海’ 가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評者는 발해가 ‘振(震)’ 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다 당으로부터 冊封을 받기 이전에 이미 ‘渤海’ 라는 국호를 사용하였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은 靺鞨을 他稱의 卑稱으로 보는 견해에 따른 것으로 唐은 渤海의 建國을 인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蔑視的인 ‘靺鞨’ 이라 칭하다가, 渤海建國을 既定事實化하고 國交樹立의 次元인 外交的 承認行爲의 冊封이 이루어지면서 그 정식 국호인 ‘渤海’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合理的이라고 생각한다. 국호를 振國에서 渤海로 고친 연대는 정확하지 않지만, 渤海를 靺鞨이라 하다가 渤海라고 불렀던 것은 당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이다(韓圭哲, 1994).

本書는 이와 관련하여 渤海王들이 ‘大’ 氏의 姓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大祚榮의 아버지 乞乞仲象이 唐 則天武后가 懷柔하여 내린 ‘震國公’ 으로부터 찾고 있다. 그러나 이 사료만을 갖고 大氏의 유래를 類推하는 것은 無理다. 아마 土着語인 ‘결결(乞乞)’ 에서 ‘大氏’ 가 되었다고 語源論的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韓國語는 크거나 호탕한 사람을 가리켜 ‘결결하다’ 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곧 ‘결결’ 이 ‘大氏’ 가 될 수 있었다고 보자는 것이다.

本書가 제시한 발해사의 시대구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물론 著者는 분명히 구분선이 그어져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있지만 시기구분의 의미는 적지 않다.

- 제1기 698~762년 (64년간) 武의 時代
- 제2기 762~823년 (61년간) 文의 時代
- 제3기 823~870년 (47년간) 富의 時代
- 제4기 870~926년 (57년간) 商의 時代

武와 文의 劃期는 발해 문왕이 渤海郡王에서 渤海國王으로 進封되는 76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文과 富의 劃期는 ‘海東盛國’ 시기로 알려진 10대 宣王 建興 6년인 823년인데, 이 해는 高貞泰 등 101명의 사신들이 일본에 파견되는 시점이자, 일본이 발해 사신의 파견은 1紀인 12년으로 제한하던 시기였다. 文과 富의 구분 기준은 다른 시기에 비해 성격상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선왕 즉위년 직후가 아닌 823년을 잡고 있는 것은 일본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저자가 시기구분의 한계를 가장 비중있게 인정한 시기가 이 때였지 않았나 한다. 다음으로 富와 商의 劃期는 13대왕인 大玄錫의 즉위시점부터로 잡고 있다.

발해사의 시대구분은 劃期の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시대구분은 발해사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지만, 외교관계를 중심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評者는 渤海와 新羅의 정치적 交涉과 對決이라는 남북국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다섯시기로 구분하였던 적이 있었는데(1994), 著者도 對唐關係를 중심으로 네 시기로 구분하였던 적도 있었다(佐藤信編, 「渤海國の對唐外交-時期區分とその特質」 『日本と渤海の古代史』, 2003). 그러나 기록이 한정된 발해사의 입장에서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한 시대구분은 渤海史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唐이나 日本이 中心이 될 可能性이 크다. 本書의 時代區分이 古畑徹에 의해 비판을 받았던 것도(2007),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762년 渤海國王의 進封이 劃期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고, 오히려 古典的이지만 渤海史의 입장에서 王의 交替期가 더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발해사의 시대구분은 지금까지 역사의 전개과정이라는 측면에서 建國期→發展期→衰退期→滅亡期 등으로 잡고 있었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저자와 같이 武→文→富→商의 時代로 구분하였던 것은 처음이다. 武와 文은 왕의 諡號로부터 나온 듯 하고, 富와 商은 저자가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다. 富와 商 모두는 발해의 경제적 변화가 기준이 되었다고 하겠으나 日本과의 교섭기록이 중시된 기준이 아니었던가 한다. 그러나 저자의 발해사에 대한 시대구분은 정치와 경제를 복합적으로 생각하여 考案된 注目할만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발해사가 중심이 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발해사의 일반적인 시대구분의 큰 줄기는 제3대 文王 大欽茂 시기까지와 제10대 宣王 大仁秀 즉위시점부터라는 점에서는 대부분이 일치하고 있다. 문왕 이전은 建國과 發展期라고 할 것 같으면 선왕 이후를 海東盛國의 重興期, 隆盛期라고 한다. 다만 4대 發王 大元義로부터 9대 簡王 大明忠까지의 793년부터 818년까지의 시기는 權力爭奪期, 停滯期로 보고 있다. 評者는 같은 입장에서 建國期→發展期→政治改革期(封建解體期)中興 및 封建再編期→滅亡期로 구분해 본 적이 있다. 다른 학자들과 다른 점은 4대로부터 9대왕에 이르는 短命 在位王 시기를 停滯期나 內紛期로 보지 않고 政治改革期 내지 封建解體期로 보았다(「渤海의 領域에서 본 高句麗繼承性」 『高句麗研究』 22, 2006). 중흥기 이전 短命 在位王 時期의 ‘國人’ 貴族들의 活潑한 政治活動을 政治改革期로서 武王과 文王대로 이어져 오던 封建的 支配秩序가 解體되는 時期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渤海의 種族系統에 대한 著者의 생각에 대하여 言及해 보고자 한다. 著者는 渤海國을 多民族國家로 보면서 靺鞨諸族의 社會였음을 여러 곳에서 強調하고 있다. 住民構成에 대해서 中國과 러시아 및 많은 日本學者들은 渤海의 靺鞨系說을, 그리고 많은 韓國學者와 一部 日本學者들은 支配層은 高句麗遺民, 被支配層은 靺鞨이라는 二元的 住民構成論을 支持하고 있다. 著者는 前者의 입장에 더 가깝지 않은가 한다. 前者는 中國史料를 중심으로 鳥山喜一이 내놓은 傳統的 見解였다면, 後者는 日本史料 속의 渤海使臣들을 분석하여 내놓은 白鳥庫吉의 見解로 알려져 있다. 특히 渤海國의 性格에 대한 韓國學界의 見解는 白鳥庫吉의 影響이 컸다고 할 수 있다.

著者가 日本에서 渤海國을 ‘滿州國’의 鄉愁에서 ‘잃어버린 王朝’로 認識하고 있기도 하다고 하면서, 이것은 自國史로 理解하며 같은 표현을 쓰는 韓國과는 다르다는 지적도 해주었다. 올바른 역사인식이 필요하다는 著者의 주장에 同感한다. 그러나 기록을 중심으로 보는 역사인식이 갖는 한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靺鞨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著者도 既存의 견해를 너무 쉽게 동의하였지 않았나 한다. 물론 著者는 渤海가 靺鞨諸族의 사회였음을 몇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舊唐書』가 발해를 渤海靺鞨로 立傳하고 있고, 『新唐書』가 大祚榮을 粟末靺鞨이라고 하였다는지 大祚榮의 冊封使였던 崔忻이 ‘宣勞靺鞨使’ 였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은 철저히 唐 중심의 기록으로서 渤海使의 복원에는 限界가 있다는 점을 좀 더 고려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한다. 靺鞨이 他稱으로 蔑視的 卑稱으로서 이를 國號나 種族名으로 삼는 것은 隋·唐 중심의 일방적 역사인식에 起因했다는 것이다.

著者는 渤海와 日本의 외교문서 등을 살펴볼 때, 일본 조정에서의 발해를 적어도 ‘靺鞨’ 이라고 부르지 않고 渤海나 高句麗로 불렀다든지, 白鳥庫吉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渤海使臣들 중에 高氏를 비롯한 高句麗系 貴族姓이 많았으며, 渤海가 高句麗의 前身인 夫餘의 風習을 잇고 있다는 기록들의 의미에 대해서도 渤海史的 理解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주민들이 어떻게 繼起的으로 歷史를 이어 왔는가 하는 점을 소홀히 한 채, 記錄者가 처한 時代나 王朝的 利害關係가 반영된 역사 기록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복원한다는 것은 올바른 歷史像을 놓칠 수가 있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그 지역에서 같은 주민들에 의해 성립된 渤海國의 성격은 先住民인 高句麗의 歷史를 前提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高句麗史가 靺鞨의 왕조였다는지, 被支配層 多數가 靺鞨이었다는 論議마저 없는 상태에서 渤海를 靺鞨의 역사로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無理가 아닌가 생각한다.

肅愼으로부터 조그맣게 키오던 종족이 커져서 비로소 발해의 住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著者는 高句麗가 大小 首領層과 ‘王’ - ‘奴隸’ 라는 종족관계를 맺고 首領을 媒介로 하여 肅愼과 靺鞨諸族을 다스렸으며 이의 통치방식은 移動性이 뛰어난 狩獵民을 통치하는 현실적인 방법이었다고 진단하였다. 그러나 발해건국의 주축이 되었던 세력과 渤海人들의 다수는 狩獵이 중심이 아닌 移動性이 약한 農耕民이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北方 遊牧族들이 農耕民을 정복하여 세운 征服王朝들이 있었지만 발해의 경우는 정복국가도 아니었고 왕조적으로 보아서 30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지만 주민들은 대부분 고향을 지키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고구려멸망 이후 中産層 이상의 주민들이 대거 唐 内地로 徙民되었다고는 하나, 이것이 주민의 성격이 뒤바뀔만한 정도가 되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沃沮, 濊와 같이 ‘高句麗’ 와 다른 종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700년이 넘는 동안 이들은 모두가 高句麗人 나아가 高句麗族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順理다. 沃沮나 濊는 夫餘·高句麗系였고, 肅愼, 挹婁, 勿吉은 다른 계통으로 이들이 성장하여 渤海의 主人公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미 그러한 內容들이 기록들에 나타나야 한다. 그렇지 않음에도 고구려멸망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말갈을 고구려와 전혀 다른 종족으로 파악하는 것은 계기적 역사발전인식을 무시한 기록중심의 해석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評者는 선학들의 연구에 힘입어 발해의 성격에 대하여 몇 편의 글을 발표하면서(『肅愼·挹婁研究』 『白山學報』 35, 1988; 『高句麗時代의 靺鞨 研究』 『釜山史學』 14·15合, 1988; 『渤海國의 住民構成』 『韓國史學報』 創刊號, 1996), 靺鞨의 實像을 추적해 왔다. 廣開土王碑가 세워지는 長壽王代나 7世紀 以前에는 모습도 없던 靺鞨이 어떻게 발해의 多數 住民이 되었는가 하는 점에서였다. 結論은 先學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靺鞨의 他稱·汎稱說에서 도출될 수 있었다. 『隋書』에서 高句麗와 함께 『東夷列傳』에 立傳된 靺鞨이란 高句麗邊防 住民에 대한 卑稱이자, 唐의 입장에서 東北方의 異民族에 대한 統稱이었다. 고구려와 다른 종족의 眞靺鞨이라면 ‘黑水靺鞨’ 로 지목할 수 있으며, 渤海를 靺鞨로 불렀던 많은 기록은 渤海에 대한 卑稱의 所産이었던 것으로 이것이 渤海의 種族系統을 高句麗와 다른 靺鞨國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다. 『舊唐書』는 발해를 ‘渤海靺鞨’ 이라고 卑稱하면서도 大祚榮을 ‘高句麗別種’ 이라 하였다는지, ‘(발해는)고구려와 풍습이 같았다’ 고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本書는 일본과 발해와의 관계가 집중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著者が 日本史 사료를 보다 심도있게 고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長點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本書가 恩師이신 末松保和의 『任那興亡史』의 제목을 絜두에 두고 그 分의 뜻을 따른다는 點에서 『渤海國興亡史』가 되었지만, 本書의 제목을 『渤海와 日本』으로 改名해도 遜色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 富와 商의 시대에 기술된 洋國간의 관계에 대한 본서의 기술은 주목할 만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黄金 100냥을 渤海僧 貞素를 통해 在唐 日本僧 靈仙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자료들에 대한 고증과 해석은 著者의 專門性이 잘 드러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가볍고 쉽게 읽혀지기 위한 大衆性을 絜두에 것이어서 그런지 索引이 없는 것이 아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本書는 專門家들이 소장하고 참고할만한 발해 참고서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더군다나 本書가 한국에서 번역 출간하게 되었다는 것은 발해와 일본간의 관계나 발해사를 이해하려는 일반 독자들의 수준까지도 몇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